

노랑부리백로

學名 *Egretta eulophotes*

英名 Chinese Egret



지구상에는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급기야는 멸절위기에 처한 새들이 갈수록 늘어 가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그래서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서는 이러한 조류를 적색자료목록 부호 몇 호로 부여하여 이런 종(種)의 멸종방지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부호 제22호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는 이런 위기의 새중 대표적인 새로서 일부, 숫자는 드물지만 통과하는 희귀조류로만 알려졌으나 이 새가 우리나라 서해안의 무인고도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천연기념물 제361호로 지정하게 되었다.

필자는 작년 9월 1일 MBC TV 자연다큐멘터리 「휴전선의 4계」 취재팀의 일원으로 이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를 답사할 수 있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용진군 북도면 신도리의 신도(信島).

강화도에서 뱃길로 세시간여 서해 바다를 가로 질러 소위 해상의 비무장지대에 자리한 무인고도인 신도에 다다르는데, 잡초만이 산재한 바위섬으로 면적은 약 3,000여평. 정상에는 목은 등대가 있고, 동쪽에는 등갯길로 쓰던 계단이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

번식기가 지난 9월 1일. 아직은 여름빛같이 진한 풀밭에는 완전히 못자란 어린 노랑부리백로가 참으로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오랫만의 인적을 듣고 몸을 감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나라에 흔히 서식하는 백로류인 중백로, 중대백로, 황로는 집단으로 나무가지에 등지를 틀고 번식을 하나, 이 노랑부리백로는 지상의 풀밭에 약간의 마른풀잎을 깔고 번식을 하고 있었다. 풀덤불이 있는 곳에는 도처에 빈둥지가 남아 있고 무정란으로 추정되는 알이 상당숫자 확인되었으며 죽어간 어린 새들의 잔해가 술하게 관찰되었다.

알의 크기는 긴지름이 45mm, 짧은 지름이 32mm로 타원형이고 연초록의 백로류알과 비슷하나 크기에 있어서는 작은 편이었다.

한배의 산란수는 4개 내외이고 먹이는 섬의 바위에 많이 서식하는 갯강구, 게조개따위를 먹고, 물고기도 먹는다.

이곳 신도에서는 추정컨데 5월쯤 날아와 6월에 등지를 지으며 7~8월에 산란, 포란, 육추를 거쳐 번식이 끝나는 늦은 개체는 9월초순까지 육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등지의 숫자는 300여개.

과거 이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은 평안북도 선천군 묵이도, 남도에서 번식을 해온 것으로 전해져 있고 동부아시아의 온대, 우수리지방, 만주 중국동부에 분포하고 한국북부등지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 대만에서의 기록도 있다.

1962년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서해안 포리와 인천 인근에서 외국인에 의해 채집된 기록은 이 신도에서 번식이 끝나고 월동지로 추측되는 대만으로 가기 위해 내륙으로 이동하여 서식하던 개체로 짐작된다.

여니 백로류와 같이 번식기의 장식깃이 없으면 식별이 어려우나 몸길이가 65cm로 대개 체구가 작고, 성체는 부리가 노랑색이며 우관 즉 뒷머리깃은 8cm 정도의 다발깃이 20여개 있고, 아랫 목에도 10cm 정도의 식우가 있다.

사라질뻔 했던 노랑부리백로의 생존이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한 종의 환생이 확인된 쾌거임에 틀림 없다.